

자동차산업

현대차, 미국 인센티브 YoY 축소 지속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5월 미국 SAAR 1,691만대 (+0.5% YoY), 평균 대당 인센티브 \$3,679 (+5.0% YoY)

5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159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SAAR 또한 1,691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0.5% 개선. 금리 상승, 가솔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경제지표 유지 및 안정적인 Light-Truck 수요 증가로 수요 상승세 지속 중. 산업 평균 대당 인센티브는 \$3,679이었으며, ASP가 높은 SUV와 Pick-up 판매비중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0% 증가.

현대차 6.6만대 (+10.1% YoY), 평균 대당 인센티브 \$2,751 (-15.0% YoY)

현대차 5월 미국 판매는 지난 3월 투입된 코나의 신차효과가 두드러지며, 18년 들어 처음으로 YoY 플러스 성장 전환. 코나의 경우, 지난 3월 2,360대, 4월 3,315대에 이어 5월 5,079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MoM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싼 (+23% YoY) · 쏠타페 (+9% YoY) 등 RV 모델 판매개선 또한 동반되며 높은 5월 판매실적을 견인.

Sedan 모델들의 생산축소와 신규 RV 모델 투입으로 평균 인센티브는 \$2,751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 (현대차 자체집계 기준 3달 연속 YoY 감소). 향후 재고 감축 및 신형 쏠타페 투입으로 추세적인 YoY 인센티브 감소 전망.

기아차 5.9만대 (+1.6% YoY), 평균 대당 인센티브 \$3,766 (+12.0% YoY)

주력 볼륨 차종인 K5 (-4% YoY)와 쏘울 (-6% YoY)의 모델노후화에 따른 판매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모델인 스포티지 (+13% YoY)의 판매성장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판매개선을 기록.

다만, 인센티브는 여전히 높은 현지 재고 상황을 반영해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했으며, 16개월 연속 YoY 증가세를 유지. 6월 이후 쏠타페의 생산이전과 더불어 MoM 재고 감소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

주요 브랜드별 YoY 판매볼륨 증가 폭

전체산업 +4.7%, 토요타 -1.3%, 닛산 -4.1%, 혼다 +3.1%, GM +11%, Ford +0.5%, FCA +10.8%, VW +2.7%, BMW +3.4%, Daimler -0.3%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